

박사학위 논문

## 俞晩柱의 『欽英』 연구

김 하 라

2011년 8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희병 선생님

이 논문은 《흙영(欽英)》에 재현된 유만주(俞晩柱)의 자아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만주의 《흙영》은 일기(日記)로써 일가(一家)를 이루고자 한 작가적 노력의 소산이다. 그는 이 저술을 문인으로서 자신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작품으로 정성을 들여 저술했고, 오로지 자신의 의도에 따라 편집하여 책으로 엮었다. 그는 이 일기 가운데서 일기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의 경험이라는 문제를 주된 서술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사적(私的) 영역을 정교화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발견된다.

하나의 항목으로 화제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유만주의 일기 구성방식은 추후의 저술을 예비하는 독서차기로서의 측면과 자아를 탐구하는 내면일기로서의 측면 모두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일기의 횡적 구성에서 일관된 원리로 작용한다. 또한 《흙영》은 종적(縱的)으로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서사로서의 측면을 일관되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와 더불어 서사적 특성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만주의 《흙영》에서는 사적(私的)이고 개인적인 목소리가 대단히 뚜렷하게 감지된다. 그는 고독한 상태에서 그 자신을 사적이고 특이하며 고립된 존재로 여기면서 일기를 써 나가고 있다. 이에 《흙영》에 기재된 내용은 야사(野史)의 측면에서 시사(時事)를 다룬 것이건, 자신의 감정을 분절하여 표현하는 내적인 독백이건, 고립된 개인

으로서의 유만주의 자아(自我)와 세계관을 반영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유만주는 크게 보아 세 층위의 자아를 구성하고, 각각의 자아에 관해 탐구하며 스스로를 해명하려 했다. 그 세 층위는 그의 현실을 바탕으로 묘사되는 경험적 자아, 역사가로서의 지향과 연관된 이상적(理想的) 자아, 그리고 그의 기호(嗜好)와 욕망을 반영한 상상적(想像的) 자아로 구성된다.

유만주의 경험적 자아는 직분 없는 사대부이자 실패한 거자로서의 처지와 관련되며, 그가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개체를 응시한 것과는 연결된다. 그는 존재의 의미를 채 구현하기도 전에 소멸하는 날벌레를 보며 광대한 세계 안에서 각각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지닌 연약함에 대해 통찰한 적이 있는데, 그가 자신을 응시하는 시선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유만주의 이상적 자아를 구성한 것은 사관(史官)이 되는 꿈이었다. 그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가가 되는 데서 찾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의 개성과 기호를 반영한 선택이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입언과 저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고, 그 구체적인 저술의 방식을 창조적 글쓰기로서의 역사에서 찾고 있다. 유만주가 이상적 자아를 추구한 결과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사유의 기록, 당대의 역사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으로 더 의미 있게 남아 있다.

몽상가로서 유만주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고독한 꿈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일기에 반영된 것이, 취향 및 기호(嗜好)의 문체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극대화한 《임화제도》(臨華制度)의 저술일 것이다. 유만주는 이상향을 향한 자신의 백일몽을 일관된 저술로 구상하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한 착상들을 지속적으로 일기에 적어놓고 있었다. 《임화제도》의 주인공인 홍도후(鴻都侯)나 봉해백(蓬海伯)은 바로 이상세계의 주재자인 유만주로서 상상적 자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상상적 자아가 발달해 있고, 자신의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을 일기에 소상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만주는 일종의 작가로서의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세 층위의 자아는 유만주의 내면에서 서로 충돌하며 모순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모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험적 자아가 부동(浮動)하고 있다는 데 있는데, 그것은 직분 없는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유만주의 처지에 연유한다. 한편으로 직분 없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연유한 자아의 부동(浮動)하는 상태는 유만주가 자신의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을 기록할 때 견지하고 있는 관찰자적 시선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고 부동하는 자아의 분열과 모순까지 재현한 결과로서의 《흙영》은 내면일기로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다.